

더원
THE ONE
ART WORLD

미술세계



05 2022
Vol. 01
창간호



SN 2950-8797

COVER ARTIST

박수근

ZOOM IN ARTIST

김경민

SPECIAL FEATURE

2022 미술품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응

ISSUE

성완경·고기범



아워레이보 X 권오상

《OUR SET : OUR LABOUR X OSANG GWON》

예술로서의 공간

1969년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후원으로, 스위스 쿤스트할레 베른에서 열린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When Attitudes Become Form)》는 기존의 큐레이팅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하나의 사건이었다. 큐레이터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은 작품을 그저 벽에 걸어놓고 관람하는 기존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 해당 전시에서 대지 미술 작가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는 거대한 쇳덩이를 이용해 전시장 밖 보도블록을 부수기도, 조각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는 납을 전시장에 붓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시에 있어 공간은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었고 작품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오는 5월 22일까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에서 진행되는 전시 《아워세트 : 아워레이보 X 권오상》은 공간을 하나의 세트장으로 연출하여 우리를 맞이한다. 조각가 권오상과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OUR LABOUR)가 협업한 이번 전시는 화려한 연출과 공간 디자인으로부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더원미술세계』는 지난 3월 15일, 해당 전시를 방문하여 작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오상과 아워레이보의 이정형, 최병석이 함께 했고 운여진 큐레이터의 의견 또한 들어볼 수 있었다.

(왼쪽부터) 아워레이보의 이정형·최병석, 권오상 ©최병석



S2 전시 전경<아워세트 : 아워레이보x권오상>,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권오상 작가님과 아워레이보가 함께한 전시입니다. 협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권오상 이번 전시는 아트스페이스광고 3주년 기념 전시예요 이 공간에 힘을 실어주고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됐어요 전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파트너로 아워레이보가 함께 초대되면서 협업하게 되었죠

아워레이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정형 아워레이보는 창작자 집단,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 부르곤 해요 현대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나 파생 형태의 산업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작가랑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 <아워세트 : 아워레이보x권오상>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해요.

이정형 이번 전시는 세트장에서 동기를 얻었어요 시노그래피(Scenography) 자체도 그렇고 전시 내에 다양한 형태의 세트가 들어서다보니, 아워레이보의 아워와 세트를 더해 아워 세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아요

권오상 관련해서 책이 한 권 나올 예정이에요 신신(신동혁, 신해옥)과 함께 디자인하고 있어요

윤여진 전시명은 신신의 신동혁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일반적인 전



좌대 위에 놓인 S3 작품 <아워세트 : 아워레이보x권오상>,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권오상, <거대한 흉상>, 프린트, 혼합매체, 265x118x106.5cm, 2013 ©전세운



권오상, <더 스텀프처 4(The Sculpture 4)>, 점토에 아크릴, 레진, 120x210x435cm, 2005~2015



권오상, <더 스텀프처 3(The Sculpture 3)>, 점토에 아크릴, 레진, 120x210x435cm, 2005~2015

사와 다른 제목이길 바랬고 그러다가 아워레이보와 세트장, 스튜디오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책의 그래픽디자인 또한 신동혁 선생님이 작업 중이고 도록도 함께 해서 5월 중순경에 발간할 예정이에요

대표 작품인 <데오도란트 타입(Deodorant Type)>을 이번 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사진 조각을 생각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권오상 사진 조각은 1998년도에 시작했어요 제가 (사진 조각을) 처음 만들었던 목적은 간단히 말해 가벼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작품을 온전하게 제작하고 이동시킬 수 있을까 몰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학을 다니면서 저뿐만 아니라 조소과 모든 학생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98년에 새롭고 다양한 조각들이 나타났고 사진으로 만든 조각도 그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당시엔 사진을 회화의 연장이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이 합쳐져서 지금과 같은 조각품이 나오게 되었죠

S1의 작품들은 손자국이 드러나도록 울퉁불퉁하게 작업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권오상 S1의 작품들은 산업미술에서 나타나는 자동차의 목업 작업을 본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히 조각품으로 보이기 위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작품은 커다란 바윗덩어리 같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마치 로댕(Auguste Rodin)의 작품 같았으면 좋겠다는 2가지의 생각이 혼재된 결과물이에요 의도적으로 손자국을 내서 터치가 들어간 정물 조각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접근했어요 작품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3대를 만들었는데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엔초 페라리, 부가티 베이론 이렇게 3가지를 만들었어요 부가티 베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죠 지금 사용하는 작업실이 조금 좁아서 이사 가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실 안에서 저 큰 규모의 작업이 이뤄진 거네요?

권오상 네, 그렇죠

윤여진 저 작품은 6등분으로 분할할 수 있어서, 나누어진 것을 미술관에서 조립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전시하는데 용이했던 것 같아요

S7의 <뉴 스트럭처 17(New Structure 17)>공간은 크로마키를 연상시키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정형 작가님의 사진과 조각의 제작 방식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작가님 작업은 어떠한 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을 소거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미 배경이 소거된 공간에 크로마키 세트를 구성하면 그 배경을 소거한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색의 경우에는 작업 자체가 워낙 화이트 있고 조각으로서의 조형미도 굉장히 좋아서, 한 색만을 공간에 적용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오상, <뉴 스트럭처 17(New Structure 17)>, 합판에 프린트, 300x400x500cm, 2017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궁금합니다.

권오상 요즘은 60대도 청년 같아서 70~80대는 되어야 원로 작가 속에 속하는 듯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역사에 남기 위해서는 기본 수명이 있어야 합니다. (웃음) 계속 장수하면서 작업하는 게 목표죠. 장수하게 되면 내가 말한 한마디가 곧 역사가 될 수 있으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살아야 해요.

이정형 아워레이보는 아이덴티티가 특이한 집단이에요. 재료가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작업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항상 새로 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이러한 상태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프로젝트에 임하는 태도 자체는 그 결과물에서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일에 참여할 때 어떻게 개입하고 진행하는지는 항상 일관됐는데, 그 모습이 결과물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시그니처를 보여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 나가야겠죠. ㄷ



〈아워세트·아워레이보〉권오상 전시장 입구 ⓒ전세운